오길 잘했군!! 덕분에 가장 멋진 집을 완성한 고냉이풀 모둠. 다른 모둠은 고전중이다. 생각만큼 적당한 자연물 모으기가 쉽지 않다. 하늘레기 모둠의 "숲속의 내 집" 아담하고 소박한 자연속의 집이 탄생하는 중이다. 하지만 있을 건 다 있다. 연못도 있고 정자도 있으니 말이다. 인동고장 모둠은 유명건축물 따라하기가 미션이었다.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은 자유의 여신상이다. 아이들이 사람도 자연물이냐며 반격하자 모델이 된 ○○이는 표정 연기로 위기를 넘긴다. 사람도 자연이야~~주변에서 모둠원들이 도움말도 보탠다. 마농꽃 모둠은 제주의 오름과 돌담을 표현했다. 발 아래 굽어보는 오름이 왠지 낯설다. "그런데 오름이 왜 이렇게 낮아?" 놀리는 친구에게 당연하지~하며 응대하는 꾸러기들. 모두 제 발아래 있으니 하찮은 듯 바라보는 표정이 귀엽다. 아이들은 자연스러운 놀이 속에서 뭔가를 창조해 내고, 서로 충돌하면서도 나름대로 질서를 찾아간다. 오늘도 우리는 함께 그러한 푸른 바람을 보고 느낀다.

목표 / 자연물을 이용하여 우리가 꿈꾸는 집을 만들어보자.

(월랑초 3 김현주)

방법 솔방울, 나뭇가지, 돌멩이, 넝쿨, 잎사귀를 열심히 모아서 만든다.

내가 만난 세상 흙 길에 그림을 그릴 때 떨렸다. 원시인들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이동해 다녔을 것이란 생각을 하니 왠지 내가 원주민이 된 것 같았다.

가장 기쁜 일 친구들이 반대했지만 나는 긴 나무를 오름 꼭대기까지 가지고 갔다. 오름에 올라가서 나뭇가지가 많으면 후회할 거라고 했지만 역시 오름 정상은 깨끗했다. 모둠원들끼리 돌아가면서 운반할 때 어려운 일을 해내니까 너무 기뻤다.

가장 큰 실수 처음에는 집을 잘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것저것 더 넣다 보니까 집이 좀 어수선해졌다.

충고 집을 만들 때 아무렇게나 시작하지 말고 설계도를 그려봐. 계획을 잘 세우면 결과도 좋다는 걸 깨달았어.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 자연에는 어떤 재료가 숨어있는지 알고 싶다. 우리 집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궁금해진다.

순서

- 모둠별 출석 확인과 목걸이 이름표 걸기
- 내나무 만나기
- 내나무에게 거름주기
- 수목원산책로 걷기
- 우리의 들꽃 찾아내어 관찰하기
- 흙길위에 들꽃 릴레이로 그리기
- 민오름 입구 도착
- 모둠별 미션지 뽑기 (숲속의 내집, 우리가 꿈꾸는 수목원, 제주의 오름과 돌담, 유명건축물 따라하기)
- 오름 정상에서 미션 조형물 만들기와 발표하기
- 책정원-그림책 읽어주기와 함께 노래하기
- 발자국남기기-아코디언북에 쓰는 작은 일기

준비물

목걸이이름표, 모둠깃발, 출석부, 아코디언북, 민오름 미션지, 자연물 수집을 위한 봉지

평가와 유의사항

수목원에서 민오름 가는 오솔길은 적당한 동선이었다. 미션을 수행하면서 30분 정도 걸었으니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었다. 수목원을 벗어나 수목원을 바라보는 시간도 의미 있었다. 역시 창작 활동에 대한 완성도와 참여 면에서 몇몇 아이들이 심심해 한다는 점이 아쉽다. 몸놀이 등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밑 작업이 필요함을 느낀다.

오늘 함께 읽은 책

1. 뛰어라 메뚜기
2. 말하는 소나무
3. 비가 톡톡톡
4. 숲속의 요술물감

5회

2013년
3월 30일

날씨
온도는 12도 정도. 차츰 차츰 더운 기운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하늘은 회색. 벌써 황사가 몰려오는 것인가.

생태놀이

주제 : 자연이 되어 몸놀이로 생태를 느껴보다.

내나무를 만난 지도 벌써 한 달째. 그 동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얘기를 나누던 내나무의 껍질은 어떤 느낌일까? 알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알게 된다는 말이 있다. 책에 나와 있긴 하지만 직접 알아보는 일은 소중하다. 오늘은 내나무의 수피 탁본 활동을 해보는 날. 나무와 나란히 서서 색연필를 통해 나무껍질을 느껴본다. 껍질은 세로로 무늬를 새기고 있는지, 정사각형으로 홈을 파고 있는지 관찰해본다. 나무 껍질을 구별할 수 있다면 나무의 종류를 아는 최소한의 열쇠를 가진 셈이 된다. 친구들과도 비교해본다. 하지만 나무위에 올라가서 터억하니 자리잡고 잠을 청하는 녀석도 보인다. 나무 위에 올라가지 말라고 자꾸 얘기 하지만, 나무도 그 나무의 친구도 같이 있는 것이 좋은가 보다. 어쩌면 나무는 일주일 내내 우리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을 지도 모른다.

생태놀이, 서로 다른 모습 서로 다른 위치에서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 자연 속에 우리가 있다는 말로 시작되는 시간. 생태놀이 전문 선생님이라고 소개하자 아이들이 눈을 반짝인다. 고재량 생태놀

이 전문가와 함께 오늘은 신나게 놀 것이다. 자연 속에 있는 어떤 것이어도 상관이 없다. 그 대상을 '나' 라고 잠깐 생각해 보자. 너와 나,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을까? 그러자 잠깐 웅성거리더니 자연속의 장수풍뎅이가 된 아이. 공기. 바람. 돌. 꽃. 나무……가 된 아이들이 탄생한다. 서로 맞물려서 살고 있는 생태계를 파괴해보는 애벌레 놀이. 생태계를 파괴하려는 애벌레와 이를 지키려는 아이들의 몸싸움이 치열하다. 그 열정으로 자연을 지키자꾸나. 애벌레 역할을 해보고 싶은 친구가 너무 많아 선생님이 좀 난감하다. 얘들아~ 애벌레는 악역인데 그래도 좋으니? 결국 가위바위보로 애벌레를 정하고…… 애벌레로부터 생태계를 지키려는 우리의 필사적인 노력도 계속된다. 자연은 강했다. 서로 힘을 모아서 강한 것은 아닌지? 어느 한사람이 손을 놓고 무너지면 와르르

해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똘똘 뭉쳐서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앞으로~앞으로~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오겠지. 노래를 부르며 둥글게 원을 만든다. 이번에는 얼기설기 거미줄을 엮어 본다. 만드는 동안 잡고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 자꾸 움직이는 아이들 덕분에 거미줄이 몇 번 끊어졌지만, 결국 거미줄을 완성했다. 자, 거미가 사냥에 나설 차례! 장난꾸러기 유람단 친구들. 거미의 먹이가 되고 싶어 거미줄 속으로 뛰어든다. 통제 불능이다. 거미줄을 잡고 있는 손가락이 줄에 당겨져 으윽으윽 아려온다. 차라리 거미줄에 걸려 잡아먹히고 싶은 표정이다. 모두가 힘을 모았다 뺐다를 리듬있게 반복할 줄 알아야 거미줄은 유지된다. 그곳에서 먹이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다. 아. 이렇게 거미 생활이 힘들 줄이야……

한바탕 몸놀이를 하고 난 후, 숲속 도서관에서 그림책을 펼쳐본다. 인동고장 모둠의 책〈 천 개의 바람 천 개의 첼로〉 각자 편안한 자세로 귀를 기울인다. 고냉이풀 모둠의 책은 〈미안해라고 말해봐〉 유람단 친구들도 용기가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 못한 경험이 있을까? 이야기 속으로 쏙 빨려 들어가는 듯 하다. 마농꽃 모둠의 책은 〈엉덩이가 집을 나갔어요〉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다. 과연 가능한 일일까? 언제나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그림책〈숲속의 그 녀석〉 그 녀석과 함께 하는 하늘레기 모둠의 숲속 여행이다.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가고, 각자의 아코디언북에 오늘의 느낌을 그림으로, 글로 표현해본다.